

2021 예배학교

'예배'란 무엇인가?

- ✓ 히브리어 '아바드' = '봉사', '섬김'이란 뜻
- ✓ 영어의 service =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 ✓ 'worship' → 'weothscipe'에서 유래
- ✓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
- ✓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



제2과 예배

오늘 우리는

- 이 과를 통해, 성경에 나타난 예배 관련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해 알게 됩니다.
- 이 과를 통해, 친구약 성경이 보여 주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 알게 됩니다.

마음 문 열기

미국 보스톤에 골든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한 나머지 책상에 엎드린 채로 깜박 잠이 들었고 잊지 못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골든 목사는 그 가운데 서른 살 정도로 보이는 낯선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던 골든 목사는 안내위원들에게 그 낯선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하는 말이 “아 그 사람 말입니까? 알고 말고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골든 목사는 어느 예배의 자리에 서든 회중 가운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믿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그 후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고 주님의 사업에 힘쓰는 능력의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요?

배움과 익힘

1. 예배와 관련된 성경의 용어들

가. 구약에 나타난 예배 관련 용어

1) 아바드(עבד)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예배’를 가리키는 용어에는 ‘봉사’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바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래 아바드는 노예와 같은 고용된 종들의 노동을 의미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제의 봉사**(예물로 드리는 봉사, 레위인의 회막 봉사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 샤하아(שחא)

‘샤하아’는 ‘엎드린다’, ‘굴복한다’라는 뜻으로 **예배자들이 숭배 대상에게 최대한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하며 강조했습니다.

나. 신약에 나타난 예배 관련 용어

1)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ία)

이 말은 ‘제사장의 직무’, ‘봉사한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 예배 용어로서, 이 단어에서 ‘예전(禮典)’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용어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의 희생 제사와는 달리 회중 전체가 참여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의 예배는 공동체 전체의 일입니다.

*‘공적인 예배’ 즉, 교의 또는 관례에 따라 규정된 공적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의식을 가리킨다.

2) 프로스퀴네오(προσκυνέω)

프로스퀴네오는 ‘손에 입맞추다’ ‘무릎을 꿇다’ ‘절하다’ 등의 기본 의미와 더불어 ‘숭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사람을 상대로 쓰였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뜻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3)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

기본적으로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중으로서 자신의 상전을 섬겨야 할 신분을 확인시키는 일’에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위가 높은 자에 대한 봉사’를 뜻합니다. 이 용어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

가. 제단을 쌓고 드리는 예배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첫 모습은 제사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형태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모습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는 아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창세기 4:3-5). 또한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창세기 8:20

또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창세기 12:8; 13:4; 13:18)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워 제단을 쌓았으며(창세기 26:25) 야곱은 벰엘에서 돌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창세기 28:18-22).

나.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출25:8-21).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번제(레 1:3-17), 소제(레 2:1-16), 화목제(레 3:1-17), 속죄제(레 4:1건:13), 속건제(레 5:14-6:7)의 다섯 가지 제사 제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제사들을 통해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8-9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공적 예배 생활은 역사적으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로는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됨에 따라 몇 군데 지방 성소들이 건립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길갈(사사기 2:1), 오브라(사사기 6:24), 실로와 단(사사기 18:29-31), 헤브론(사무엘하 5:3), 기브온(열왕기상 3:4) 등이 있습니다.

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립함으로써 성막의 기능은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성전은 성막의 발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백성은 십일조와 희생제물을 준비하여 성전에 모였고, 예배는 음악, 독창, 축송, 환성, 춤, 행렬, 기도, 악기 연주, 설교, 선조들에 대한 회상, 간구, 약속, 신앙고백, 봉헌, 거룩한 식사, 정결예식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성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솔로몬 성전(B.C. 959; 열왕기상 6:1-38), 스룹 바벨 성전(B.C. 516; 에스라 6:15-18), 그리고 신약 시대의 헤롯성전(B.C. 20-A.D. 63)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솔로몬에게 입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6:11-13

라. 회당예배

남왕국 멸망 이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더이상 성전(예루살렘)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한 의식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회당예배가 등장하게 됩니다.

회당예배의 중요한 내용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축원이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드리는 공중예배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게 됨으로써 성전예배에서 드리던 희생제사가 예배에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제사 대신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아침, 오후, 저녁에 행해짐에 따라 예배 역사상 처음으로 희생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누가복음 4:16

마. 성찬예배

초대교회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성찬이 예배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가진 유월절 식탁에서 비롯되었으며 교회가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 세워진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6:40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늬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골로새서 4:15

마. 천국예배

예배는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자들은 변화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예배를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9-10

더불어 나눔

-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역사를 보면서 새롭게 다가오고 깨달아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 더 이상 구약 시대의 복잡한 제사 절차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사실을 더욱 깊이 되새기며 예배로 나가보십시오.

인식하지 못하던 사실로 인해 예배의 감격이 더 깊어졌나요? 나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마음에 새기기

성경에는 예배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1. 구약에 나타난 용어(아바드, 샤하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신약에 나타난 용어(레이투르기아, 프로스퀴네오, 라트레이아)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 전해 주고 있습니다

1.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첫 모습은 제단을 쌓고 드린 제사였습니다.
2.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 제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3.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4. 성전 예배가 힘들어진 포로시대에 회당예배가 등장했습니다.
5. 초대교회는 예배 때 성찬을 했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6. 예배의 완성인 천국에서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